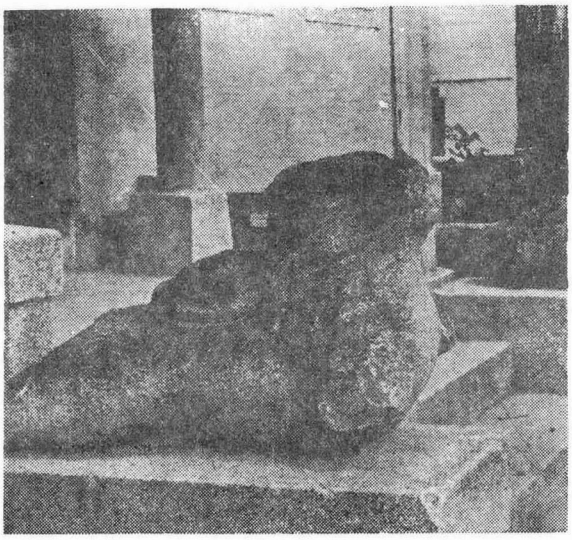
老에게 물었더니 碑身이 數十年前에는 굴러있었다고도 하고 埋沒되었다고도 하므로 確實하지는 않다。 그런데 寺址에 現存하는 三層石塔 三基가 墓塔으로 推定된 바도 있어 그 中의 一基를 上擧한 無染大師의 白月葆光塔으로 想定한다면 殘餘二基中의 一塔은 이 逸名塔碑와 有關될 수도 있을 것이며 혹시 大師의 法統을 繼承한 高僧의 塔碑로 解釋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年代는 彫法과 樣式에서 羅末麗初頃으로 推定하는 바이다。

〔註〕 이 螭首만은 昨年에 扶餘博物館으로 移置되었는 바 龜趺의 保存策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附記〕 이 곳에서 高麗在銘平瓦를 拾得하였는데 「聖住寺佛當華」라 陽刻되었다。

公州의 石獅 二軀

金 永 培



公州邑 鳳凰洞 二二七番地 洪寬杓氏宅 玄關兩側에 安置되고 있는데 約 三十三年前에 庭園을 꾸밀 때 入手된 것이라고 한다。 이 둘은 邑內 中洞 道立病院 後方에서 搬移된 것이라는 바 그 곳은 客舍境內라고 傳하고 있다。石獅의 現狀은 모두 前後足을 缺하고 頭部와 胴體만을 남기고 있는데 거의 同大同形으로서 後足은 힘있게 버티고 前足은 무엇인가 받치고 있었던 것과 같다。 모두 고개를 들어 正面하였고 南側은 齒牙를 보이며 北側것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數例現存하는 雙獅石燈의 竿柱로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으며 雙으로 門柱나 石階같은 곳에 裝飾用으로 配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그 年代는 高麗 또는 그 以前까지 올려볼 수도 있을 듯 하다。 (크기는 南側것이 長 八四㎝ 高 五三㎝ 北側것이 長 七五㎝ 高 五一㎝)

寧越 武陵里의 靑石塔과 磨崖坐佛

鄭 永 鎬

寧越郡 水周面 武陵里에서 法興里를 向하여 約 二㎞되는 地點 左便江岸에 자리잡은 「邀僊亭」前庭에는 靑石塔과 磨崖石佛 各一이 遺存하고 있다。

一、靑石塔(寫眞 다음장 上)

原位置로서 身・蓋를 거의 具存한 稀例이다。 全高는 一六〇㎝로서 花崗石의 基壇部 (高 八〇㎝)와 黑色粘板岩의 塔身部 (高 八〇㎝)로 兩分된다。 單層基壇으로서 一邊長 一二〇㎝의 方形地臺石上에는 四分圓의 몰딩과 角形一段의 받침을 刻出하였고 (一邊長 八〇㎝) 中石(高 四五㎝ 幅 六四㎝) 各面에는 隅柱(幅九㎝)와 撑柱(幅一五㎝)를 刻하였으며 一邊長 九〇㎝의 甲石은 倒置되어 있다。 現存六層으로 屋身은 第一層만이 缺失되었는데 일찍이 倒壞되었음인지 破損이 甚하며 順位도 整然하지 못하다。 屋蓋마다 二段의 얕은 角形받침이 있고 上面에는 一段의 塔身받침이 있는 바 그 上下面에는 모두 屋身의 넓이만큼 方框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屋身의 固定을 위한 처음보는 手法이다。 屋蓋의 두깨가 얇고 落水面은 平薄하며 四隅의 轉角이 返轉되어 매우 輕快한 作風을 보인다。 屋身의 各層이 一石으로서 各面마다 三處에 圓圈內 梵字 (例컨데 五層南面은 ㉣ ㉤ ㉥) 를 太線으로 陰刻하였는데 이것 또한 처음보는 手法으로 특히 注目되었